

영국의 육아정책 동향

장혜진 부연구위원

영유아 시절에 양질의 유아교육·보육을 제공하는 것은 이 후 학교나 전반적인 삶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국은 최근 정책 개혁(policy reform)을 중심으로 유아교육·보육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는 영유아의 배경에 관계없이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또한, 맞벌이 가정을 위해 비용 면에서 적절하고 접근성이 좋은 기관을 강조하고 있으며 유능하고 높은 자격조건을 지닌 교사를 통해 양질의 유아교육·보육을 제공하고자 한다. 현재의 유아교육·보육 관련 정책 개혁은 크게 세 가지로 유아교육·보육 기관을 이용하는 부모가 다양한 선택을 하도록 지원, 부모의 유아교육·보육 비용 부담 경감, 유아교육·보육의 질 향상이다.

1. 들어가며

영국에서 양질의 유아교육·보육은 영유아의 발달을 도모함과 동시에 학교나 이 후 시기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토대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이는 계층 간의 차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뢰할 수 있고, 비용 측면에서 적절한 보육은 부모가 일하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영국 정책 개혁에 대한 정부의 프로그램은 유아교육·교육의 질(quality), 이용가능성(availability), 비용의 적절성(affordability) 측면에서

개선하여 영유아의 학습하고자 하는 성향을 개발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¹⁾

2. 영국의 유아교육·보육 현황

가. 유아교육·보육기관 현황

유아교육 및 아동 관련 서비스는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유아교육·보육기관은 크게 6종류로 종일제 보육시설(Full day care), 기간제 보육시

1) Department for Education(2014a). Early education and childcare: Research priorities and questions.

설(Sessional), 보육도우미(Childminders), 유아학교(Nursery schools), 유아학급과 초등예비학급이 있는 공립초등학교(Primary school with nursery classes), 유아학급 없이 초등예비학급만 있는 공립초등학교(Primary schools with reception classes but no nursery)로 나누어진다. 종일제 보육시설은 주로 5세 미만 유아가 이용하나 0~2세 유아가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기간제 보육시설은 5세 미만 유아가 이용하나 0~2세보다는 3~4세 유아가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 유아학교는 2세부터 4세까지 이용하며, 유아학급과 초등예비학급이 있는 공립초등학교는 2~5세까지 이용하며, 유아학급 없이 초등예비학급만 있는 공립초등학교는 4~5세만 이용하고 있다. 초등예비학급의 경우에는 평균 이용시간이 다른 기관보다 많아 30

시간 정도에 이른다. 보육도우미는 다른 유형이 기관 중심인 것과 달리 가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외에도 영유아 센터(Children's centre)가 있는데 슈어 스타트(Sure start)의 계획 하에 시작된 것으로 일자리센터 플러스와 건강가족지원 등의 다른 가족서비스와 더불어 출생 직후부터 만 5세를 위한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일시적 그리고 공동체 활동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²⁾

유아교육·보육기관은 2013년 기준으로 영국에는 총 139,650개가 있으며, 이 중 보육시설은 122,850개, 유아학교 및 초등학교 내 학급인 유아교육기관은 16,800개다. 기간제 보육시설의 수는 2006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기간제보다는 종일제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표 1〉 유형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기관 수

단위: 개

유형	2013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종일제 보육시설	17,900	17,600	16,700	14,100	13,800	13,600	12,700
종일제 아동센터	450	550	800	1,000	1,000	950	700
기간제 보육시설	7,100	7,900	8,300	7,800	8,500	8,700	9,700
Before School	12,800	n/a	n/a	n/a	n/a	n/a	n/a
방과후 클럽	13,400	10,000	9,500	7,900	8,800	8,500	7,700
휴일 클럽	7,200	7,900	7,700	6,400	6,500	5,800	6,400
보육도우미(현재 근무)	46,100	48,800	47,400	51,000	56,200	59,800	57,900
보육도우미(등록된)	55,900	57,500	57,900	63,600	65,800	69,200	71,500
보육기관 전체	122,850	92,200	89,600	87,200	93,800	96,400	94,400
유아학교	400	400	400	450	450	450	450
유아학급과 초등예비학급이 있는 공립초등학교	7,600	6,700	6,700	6,700	6,700	6,800	6,500
유아학급 없이 초등예비학급만 있는 공립초등학교	8,800	8,600	8,600	8,600	8,700	8,900	9,200
유아교육기관 전체	16,800	15,700	15,700	15,700	15,850	16,150	16,150
전체	139,650	107,900	105,300	102,900	109,650	112,550	110,550

자료: Department of Education(2014).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 2013. p. 34.

2) Department for Education(2014b).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education>.

〈표 2〉 설립유형별 보육시설 수 및 비율

단위: 개, %

설립유형	종일제 보육시설			종일제 아동센터			기간제 보육시설		
	2013	2011	2010	2013	2011	2010	2013	2011	2010
전체 수	17,900	17,600	16,700	450	550	800	7,100	7,900	8,300
사립	91%	91%	89%	34%	32%	34%	90%	94%	95%
영리	61%	61%	59%	17%	16%	16%	39%	34%	31%
비영리	30%	31%	30%	18%	16%	18%	52%	60%	64%
공립	9%	8%	12%	65%	69%	68%	10%	6%	7%
지방정부	4%	5%	6%	51%	53%	57%	6%	4%	4%
대학	5%	3%	5%	14%	16%	11%	5%	2%	3%
기타	1%	1%	2%	4%	1%	3%	*	*	1%

설립유형	Before School			방과후 클럽			휴일 클럽		
	2013	2011	2010	2013	2011	2010	2013	2011	2010
전체 수	12,800	n/a	n/a	13,400	10,000	95,000	7,200	7,900	7,700
사립	44%	n/a	n/a	56%	67%	66%	84%	75%	75%
영리	32%	n/a	n/a	41%	43%	38%	60%	50%	48%
비영리	13%	n/a	n/a	16%	24%	28%	24%	25%	27%
공립	55%	n/a	n/a	44%	32%	35%	16%	24%	26%
지방정부	3%	n/a	n/a	4%	5%	7%	4%	5%	10%
대학	52%	n/a	n/a	40%	27%	28%	12%	19%	16%
기타	1%	n/a	n/a	1%	1%	*	1%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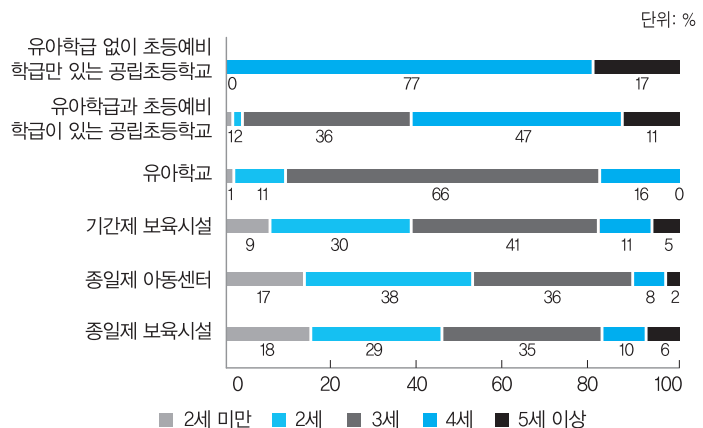
자료: Department of Education(2014).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 2013. p.50-51.

기관 중심 보육을 선호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육시설을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립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종일제 보육시설과 기간제 보육시설로 각각 91%, 90%를 차지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사립 중에서도 비영리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종일제 보육시설의 경우 전체 대비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이 61%, 기간제 보육시설은 39%로 나타났다. 사립임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기관이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공립초등학교 내 유아학급이나 초등예비학

급은 모두 공립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를 제외하면 전체 대비 공립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기관은 종일제 아동센터다. 종일제 아동센터로



자료: Department of Education(2014).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 2013. p. 214-215 내용을 참고로 재구성함.

[그림 1] 연령별 유아교육·보육기관 이용 영유아 비율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다수 지방정부가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이용하고 있는 기관을 살펴보면 종일제 보육시설, 종일제 아동센터, 기간제 보육시설은 2세 미만부터 4세까지 골고루 이용하고 있으나 초등예비학급은 주로 만 4세, 유아학급과 초등예비학급은 3세와 4세가 주로 이용하고 있다. 수업 전 학교나 방과 후 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 수는 많으나 이용 아동의 70% 정도가 5세 이상이다.

나. 교사 자격수준

기관 유형별로 유급(paid) 교사 자격 중 최고 수준을 살펴보면, 기관에 상관없이 교사의 90% 전후가 3수준(vocational level)을 갖추고 있으나 최소한 5수준(higher level qualification)을 비교하면 기관 기반 제공자(group-based providers)에 비해 학교 기반 제공자(school-

based providers)의 비율이 높아진다. 최소한 6수준은 유아교육 관련 학사수준인데 종일제 아동센터는 30%인데 반해 종일제, 기간제 보육시설은 각 13%, 12% 수준으로 그 비율이 낮다. 학교 기반인 세 기관에서는 40% 전후로 보육시설이나 아동센터에 비해 학사수준 교사의 비율이 높다.

3. 영국의 정책 개혁 개요

영국에서도 아동 초기에 양질의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학교나 이 후 삶에서 아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믿고 있다. 이는 모든 아동이 배경에 상관없이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적절하고 접근이 용이한 보육기관은 맞벌이 가정에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여 무엇보다 더 유능하고 나은 자격조건을 지닌 교사와 양질의 유아교육·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³⁾

〈표 3〉 유급 교사의 관련 자격 중 최고 수준

단위: %

수준	기관 기반 제공자(group-based providers)			학교 기반 제공자(school-based providers)		
	종일제 보육시설	종일제 아동센터	기간제 보육시설	유아학교	유아학급과 초등예비학급이 있는 공립초등학교	유아학급 없이 초등예비학급만 있는 공립초등학교
무자격	4	1	6	3	5	7
최소한 1수준	94	96	92	96	92	87
최소한 2수준	93	95	92	95	91	86
최소한 3수준	87	93	84	89	85	78
최소한 5수준	20	37	18	42	44	50
최소한 6수준	13	30	12	35	40	45

주: 1수준-GCSE grade D-G, 2수준-GCSE A*-C, 3수준-Vocational A level, 4수준-Higher level qualifications (e.g. Certificate in Early Years Practice), 5수준-Higher level qualifications (e.g. Diploma in Higher Education and Playwork, Early Years Foundation Degree), 6수준-Honours degree (e.g. BA Early Childhood Studies, Bachelor of Education (BEd), Early Years Professional Status).

자료: Department of Education(2014).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 2013. p. 146-147 표를 번역하여 재구성함.

3) GOV. UK (2013a). Policy: Improving the quality and range of education and childcare from birth to 5 years(Issue and Actions).

가. 부모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영국에서는 유아교육·보육 서비스가 필요하고 유아교육·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

- 1) 2014년 9월부터 2세 대상 기관을 40%까지 확대함.
- 2) 부모가 Ofsted에 등록되지 않은 이웃이나 친척을 고용하여 자녀를 하루에 최대 3시간 까지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이 비공식적인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3) 체계적인 훈련을 제공하고 부모와 연결시켜 주는 새로운 보육도우미(childminder) 기관을 소개함.
- 4) 학교에서 더 많은 유아학급을 만들도록 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을 확대하도록 장려함.

- 5) 학교에서 방과후 과정, 휴일 보육을 혼자 혹은 개인도우미/봉사자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줌.
- 6) 잘 운영되고 있는 유아학교가 운영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줄임.

자료: GOV. UK (2013a). Policy: Improving the quality and range of education and childcare from birth to 5 years(Issue and Actions).

영국 정부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원들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교사가 있는 양질의 기관에서 더 많은 영유아가 긍정적인 혜택을 받기를 원한다. 초등학교 내 유아학급에서도 연령의 범위를 융통성 있게 늘려만 2세의 유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운영시간 측면에서 유아학급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어 교

〈표 4〉 만 2세와 만 3~4세 영유아 지원 기관의 비율

단위: %

기관 유형	만 2세 지원을 하는 기관의 비율	만 2세 지원을 하는 기관 중에서 만 2세가 재원중인 기관 비율	만 3~4세 지원을 하는 기관의 비율	만 3~4세 지원을 하는 기관 중에서 만 3~4세가 재원중인 기관 비율
종일제 보육시설	74	79	95	97
종일제 아동센터	95	99	87	91
기간제 보육시설	68	76	90	93
보육도우미	7	12	13	20
유아학교	35	90	95	100
유아학급과 초등예비학급이 있는 공립초등학교	6	52	94	98
유아학급 없이 초등예비학급만 있는 공립초등학교	n/a	n/a	53	56

자료: Department of Education(2014).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 2013. p. 100 표를 번역함.

4) GOV. UK (2013a). Policy: Improving the quality and range of education and childcare from birth to 5 years(Issue and Actions).

육적인 측면에 치중하였던 유아학급에서 보육의 기능을 담당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영국 정보는 만 2세가 다닐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고 있다. 만 2세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기관의 비율은 종일제 아동센터에서 95%로 가장 높고, 종일제 보육시설 74%, 기간제 보육시설 68%이며 보육도우미가 7%, 유아학급과 초등예비학급이 있는 공립초등학교가 6%로 가장 낮다. 이 중에서 실제로 만 2세가 재원하고 있는 기관의 비율도 종일제 아동센터가 99%로 가장 높으며 보육도우미는 12%로 매우 낮다. 눈에 띄는 점은 유아학교 중 만2세를 지원을 하는 기관 비율이 35%로 높지 않았지만 이 중에서 90%의 기관에서 실제로 만 2세가 다니고 있다는 점이었다.

영국은 보육도우미 기관(agency)의 설립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을 최근 소개하였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보육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혹은 이전부터 일하고 있는 보육도우미에게 전문 교육을 지원하고, 보육도우미 역할의 질을 개선하고, 부모에게 영유아보육을 위해 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보육도우미는 기관에 등록을 할 수도 있고 개인이 독립적인 위치로 남을 수도 있다.⁵⁾ Ofsted(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 and Skills)는 독립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도우미를 평가할 것이다. 보육도우미 기관도 평가하게 되는데 기관에 등록한 보육도우미의 질 관리를 위한 기관 조직이나 운영에 대해 자세하게

평가할 것이다. 2014년 9월부터 childminder agency에 대한 등록을 시작하였으며 2015년 1월부터 이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시작할 예정이다.⁵⁾

나. 부모의 유아교육·보육 비용 부담 경감

부모의 유아교육·보육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다음과 같다.

- 1) 2015년 가을부터 시행되며 한 영유아당 1년에 최대 £2000(한화 약 342만원)까지 지원하는 보육면세제도를 소개함.
- 2) 범용 신용(Universal Credit)의 일환으로 2016년 4월부터 저소득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 3) 3, 4세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2016년에 £50,000,000(한화 약 857억)를 유아학교, 학교 및 정부가 지원하는 유아보육시설에 지원함.

자료: GOV, UK (2013a). Policy: Improving the quality and range of education and childcare from birth to 5 years(Issue and Actions).

현재 만 3-4세 이상 유아를 대상으로 1년 기준 38주 동안 매주 15시간의 무상교육·보육을 제공하고 있다.⁶⁾ 시간수로 계산하면 1년 570시간 기준이나 실제로 제공하고 있는 무상교육·보육은 그 이상으로 평균이 종일제 보육시설 40주, 종일제 아동센터 42주, 기간제 보육시설 39주, 보

5) Ofsted(2014a). The report of Her Majesty's chief inspector of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 Early Years.

6) European Commission/EACEA/Eurydice/Eurosta(2014). Key data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Europe, 2014 Edition, Eurydice and Eurostat Report,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표 5〉 재정지원 받는 만 2세, 만 3-4세 유아 전체 수 및 기관당 평균

단위: 명

기관 유형	재정지원 받는 만 2세 유아 수	기관 당 재정지원 받는 만 2세 유아 수	재정지원 받는 만 3-4세 유아 수	기관 당 재정지원 받는 만 3-4세 유아 수
종일제 보육시설	68,500	5	299,200	18
종일제 아동센터	6,000	14	10,900	28
기간제 보육시설	27,200	6	108,500	17
보육도우미	2,200	1	7,500	1

자료: Department of Education(2014).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 2013, p. 105를 번역함.

육도우미 44주로 나타났다. 2103년 9월부터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부모나 보호자가 영유아를 보살피지 못하는 경우 지방정부에서 보육을 제공하는 만 2세 영아와 최저임금 20% 이하 가정의 만 2세 영아에게 15시간(1주일 당)의 무료 유아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⁷⁾ 2014년 9월부터는 최저임금 40% 이하 가정의 만 2세 유아에게로 확대하여 재정 지원을 받는 유아의 범위가 늘어났다. 재정지원을 받는 만 2세는 종일제 보육시설과 기간제 보육시설에 많지만, 기관 당 유아 수는 종일제 아동센터에 많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5 참조).

2015년 9월부터 보육면세제도(Tax-free childcare scheme)가 시행될 예정이다. 혜택 가정은 약 2백만에 달하며, 첫 해에는 5세 이하의 아동을 두거나 자녀가 12세 이하의 맞벌이 가정에 제공될 예정이다. 16세 이하의 장애아동 역시 대상이며, 기존의 직장지원보육과 유사한 맥락이다.⁸⁾ 이 제도는 부모 모두 취업자인 경우, 각 부/모 수입이 연간 £150,000(약 1억 7천만 원) 미만인 경우, 부모가 세금 공제 또는 범용신

용에서 세금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부모는 보육 바우처를 구입할 수 있는데 부모가 80% 부담하면 정부가 나머지 20퍼센트를 부담하게 된다. 한 영유아당 최대 £10,000파운드(약 171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바우처는 Ofsted 관리 하에 있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보육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⁹⁾

다.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질 향상

유아교육·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다음과 같다.

- 1) 2014년 9월, 영유아 교사의 자격을 향상하고 영유아교사 자격(Early Years Educator Qualification)을 도입함.
- 2) 실습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통해 보다 역량있는 신입생이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함.
- 3) 영유아 Teach First를 도입함.
- 4) 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및 부진한 기관이

7) Department of Education(2014).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 2013.

8) Department of Education(2014).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 2013.

9) GOV. UK (2013b). Policy: Improving the quality and range of education and childcare from birth to 5 years(Tax-free childcare scheme).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Ofsted와 협력함.
5) 영유아가 안전할 수 있도록 관리함과 동시에 영유아 기관의 등록 절차를 간소화함.

자료: GOV, UK (2013a), Policy: Improving the quality and range of education and childcare from birth to 5 years(Issue and Actions).

이전의 영유아 교사 자격 제도가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선되었다. 2013년 7월 교수 및 리더십을 위한 국립대학(National College for Teaching and Leadership, NCTL)은 새롭고 보다 강화된 3수준의 범주로 영유아 교육자(Early Years Educator)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3수준을 충족시키는 자격조건은 2014년 9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자격조건은 영유아 교육자가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0세-5세 영유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여겨 질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다. 자격조건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은 크게 6가지로 1) 영유아의 초기 교육과 발달을 지원하고 도모하기 2) 영유아가 성장하고 이후 학교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보살핌, 교수, 학습을 계획하고 제공하기, 3) 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생산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기, 4) 효과적인 교수 및 방법 개발하기, 5) 영유아의 건강, 안전,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6) 주요인물, 동료, 부모나 보호자, 다른 전문가와 협력하기다. 모든 3수준의 유가 교육자 자격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격평가규제청

(Office of Qualifications and Examinations Regulation)이 정한 국가수준의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한다.¹⁰⁾

한편, 영유아 교사(Early years teachers)는 영유아 발달의 전문가로 0-5세 영유아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훈련 받는다. 그들은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 지원하고 영유아 교사를 포함하여 교사를 이끄는 역할을 하는데 초등학교 교사 실습생과 동일한 입학 조건과 능력 테스트를 거친다. 2013년 9월에 영유아 초임교사 양성제도(Early Years Initial Teacher Training)를 소개하였다.¹¹⁾

영국의 영유아기관 평가는 교육표준청(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 Ofsted)에서 실시하고 있다. 영유아 기관 평가의 목적은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등록을 위한 요구수준이나 교육과정의 기준에 적절한지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평가결과가 부모나 의회에 전달되어 기관의 개선을 기대하는 것도 평가의 목적이다. 교육표준청의 현재 이슈는 평가 과정을 더욱 명료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평가는 유아의 교육, 인성과 정서 발달에 초점을 두면서 유아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평가를 통해 모든 기관이 기준을 상향하도록 도와주고자 하지만 기관에 더 많은 자유와 필요 없는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기준을 지키는 기관에는 자율성을 주려

10) NCTL(2013a), Early Years Educator(Level 3): Qualifications Criteria.

11) NCTL(2013b), Early Years Initial Teacher Training: September 2014.

12) Ofsted(2014b), Making inspections of school, college and children's services more effective.

〈표 6〉 2012. 9. 1.~2013. 10. 31. 사이 평가한 기관 유형별 평가 결과 비교

단위: 개, %

구분	평가한 총 기관 수	매우 뛰어남	좋음	만족할만함	부적합함
보육도우미(Childminder)	8,767	5	62	27	7
비(非)가정 기반 보육시설 (Childcare on non-domestic premises)	8,585	10	57	23	9
가정 기반 보육시설 (Childcare on domestic premises)	81	19	51	20	11
모든 기관(All provision)	17,434	7	60	25	8

주: 2013. 10. 31. 기준임.

자료: Ofsted(2014a), The report of Her Majesty's chief inspector of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 p. 32.

고 하는 데 반해 기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을 대상으로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¹²⁾

〈표 6〉은 2012. 9. 1.~2013. 10. 31. 평가한 기관의 수와 평가결과를 보여준다. 14개월 동안 평가한 기관의 수는 17,434개며 이 중에서 ‘매우 뛰어남’ 결과를 받은 기관의 비율은 가정 기반 보육시설(Childcare on domestic premises)에서 가장 높지만 ‘부적합함을 받은 비율도 가장 높다. 기관에 따라 평가 등급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며 70% 전후의 기관이 ‘매우 뛰어남’ 혹은 ‘ 좋음’ 등급을 받았다.

4. 나오며

현재 영국 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정책 개혁은 매우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추진되고 있다. 첫째, 부모가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육도우미까지 공식적인 유아교육·보육의 형태에 포함시키는 등 최대한 부모의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부모의 교

육·보육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보편지원이 아니라 저소득 계층 영유아를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끝으로 유아교육·보육 기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사 자격을 향상시키고 기관 평가를 통해 질 관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부모의 다양한 상황과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공식적인 지원으로서의 보육도우미 지원, 다양한 기관 운영시간 확대 등이 있으며 다양한 교사 자격 수준 관리, 저소득층 영유아 대상 지원 강화,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질이 낮은 기관 대상 사후 관리 강화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책 수립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영유아, 부모, 교사, 연구자 및 정책입안가의 의견이 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영국의 유아교육·보육 정책을 알아봄으로써 새로운 시각에서 영유아 부모를 지원하고 유아교육·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